

MLB 류현진-황재균, 31일 투타 맞대결?

마이너리그 내려갔던 황재균, 류현진 샌프란시스코전 등판때 맞춰 빅리그 다시 올라올 가능성 제기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등갑내기 '절친' 류현진(30·LA 다저스)과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투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생겼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다저스 담당 기자 켄 거너는 27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저스 감독이 선발 로테이션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지난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던 류현진은 31일 오전(9시8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인 6월29일 LA 에인절스전에서 왼 발에 타구를 맞은 류현진은 28일 만의 등판인 25일 미네소타전에서 50닝 2실점을 기록했다.

승패와는 무관했다.

올 시즌 15경기에서 77%이닝을 소화하며 3승 6패 평균자책점 4.17을 기록한 류현진은 다음 등판에서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류현진의 등판일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던 황재균이 류현진의 등판하는 때에 맞춰 빅리그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더 머큐리 뉴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29일 시작되는 다저스와의 3연전을 앞두고 로스앤젤레스에 변화를 줄 계획을 드러냈다.

보치 감독은 "우타 3루수를 빅리그 로스



↑류현진(30·LA 다저스)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터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치 감독은 "파블로 산도발이 마이너리그에서 타석을 더 소화해야 한다. 또 스위치 히터인 산도발이 우타자로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더 머큐리 뉴스는 "보치 감독의 말대로라면 황재균이 빅리그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더 머큐리 뉴스는 "보치 감독이 언급한 것에 딱 맞는 선수는 황재균이 유

일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 대로라면 알렉스 우드 리치 힐, 류현진 등 왼손 투수 3명이 차례로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에 등판한다. 이에 맞춰 우타자 쪽을 보강하겠다는 뜻이다.

메이저리그에 머문 24일 동안 타율 0.167을 기록한 황재균은 왼손 투수를 상대로 타율 0.333(12타수 4안타) 1홈런 3타점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트리플A에서 타율 0.299(250타수 76타수) 7홈런 45타점을 기록한 황재균은 좌완 투수를 상대로 타율 0.321(56타수 18안타) 2홈런 12타점으로 강했다.

지난 23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황재균은 규정상 열흘 뛰어나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부상자명단에 오를 선수가 있으면 풀입이 가능하다.

/김민근기자



내일 전주시장배 청소년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청소년들의 친치인 전주시장배 청소년클럽대항 축구대회가 오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완산덕진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다.

청소년클럽대항 축구대회는 청소년들이 여가생활 및 상호 담당한 경쟁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체력증진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 해마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주 시내 중·고등학교 축구클럽 23개팀(중등부 13, 고등부 10)이 참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부문별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은 30일 각각 진행된다.

오재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이번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는 평소 연마한 기량과 함께 친목과 화합을 도모, 상대팀을 배려하는 등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주길 바란다"며 많은 관전을 당부했다.

/인재용기자

K리그-대한축구협회, 심판 VAR 보수교육 실시

프로축구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K리그 심판들을 대상으로 VAR(Video Assistant Referee·비디오판독)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전인축구센터에서 열린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유병섭 전임 심판장사의 VAR 프로토콜 교육을 시작으로 ▲비디오판독 심판의 역할과 임무 ▲비디오판독 대상이 되는 영상 및 시점의 선택 ▲오프사이드 상황에서의 실전 훈련 및 판독 시그널(Signal)의 통일성 ▲올 시즌 K리그에서 있었던 비디오판독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심판 개인별 피드백 등 VAR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일부터 K리그에서 시행되고 있는 VAR 제도의 안착과 심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K리그는 앞으로도 VAR 시행 현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보고하는 등 VAR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오승환, 콜로라도전 5점차 9회 등판 1이닝 2K '완벽투'

시즌 평균자책점 3.89에서 3.80으로 ↓

사흘 만에 등판한 오승환(36·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이 9회 5점차 상황에서 1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오승환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팀이 10-5로 앞선 9회초 등판해 삼진 2개를 잡아내며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세이브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89에서 3.80으로 낮아졌다.

지난 24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사흘 만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첫 상대 투

레버 스토리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1B2S의 유리한 볼카운트를 가져간 오승환은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오승환은 후속타자 라이언 하니건을 3루수 앞 땅볼로 잡고 침착하게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이어 오승환은 팻 발라이카를 헛스윙 삼진으로 슈아냈다.

시속 98마일(약 150km)이 넘는 직구로 연신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그대로 10-5 승리를 거둔 세인트루이스는 3연승을 달렸고, 50승(51패)를 수확했다.

/김민근기자



'군함도' 개봉 첫날 97만명...역대 오프닝 신기록

60만장이 넘는 역대 한국영화 최대에 매출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장악을 예고한 영화 '군함도'가 신기록을 썼다.

27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함도'는 개봉 첫날인 7월 26일 97만1616명을 끌어모아 역대 오프닝 신기록을 경신했다.

'군함도'는 지난 현충일에 개봉해 종전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던 영화 '미이라'의 개봉 첫날 스코어인 87만 2965명을 넘어섰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부산행'의 첫날 스코어인 87만2673명,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의 최고 흥행작 '명량'의 첫날 스코어인 68만2701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역대 첫만 흥행작인 '베테랑'개봉 첫날 41만 4219명, '암살'(개봉 첫날 47만7541명)의 두배에 가까운 개봉 첫날 스코어를 기록했다.

또 37.1%의 스크린 점유율을 기록한 '군함도'는 52.8%의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예매율 역시 60%를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흥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